

우리나라 고속국도 나들목(IC)의 명칭 특성

송호열*

The Name Characteristics of Expressway Interchange in South Korea

Hoyul Song*

요약 : 우리나라는 54년 전부터 고속국도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속국도의 주요 시설물들 자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분기점과 휴게소에 이어 나들목의 명칭 특성을 분석하였다. 2020년 말 현재 500개 나들목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들목 명칭의 어종은 95.8%가 한자어였고, 평균 음절수는 2.60음절로 상당히 짧았으며, 대체로 지수분포를 보였다. 명명 유연성 측면에서는 행정구역명 관련 나들목 명칭이 65.0%로 가장 많았고, 결합지명이 28.2%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들 명칭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한국도로공사의 「시설물 명칭 부여 기준」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주요어 : 고속국도, 나들목(IC), 명칭, 명명 유연성

Abstract : It has been 54 years since South Korea began to build the expressway. However, there was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expressway's own major facilities. So, this study analyzed the nam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change (IC) after the two same research of expressway junction (JC) and expressway service area (SA). As of December 2020, the analysis results of 500 ICs were as follows. In word type analysis, 'Sino-Korea' word was 95.8%. In syllable analysis, mean number of syllable was 2.60 and syllable of IC names has exponential distribution roughly. In name source analysis, IC name related to administrative district name was outstanding with 65.0% and combined name of IC was followed by 28.2%. The reason these names won the majority is judged to be influenced by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s 「Facilities Naming Criteria」.

Key Words : Expressway, Interchange, Name, Name source

I. 서론

우리나라에서 고속국도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이다. 경인선은 1967. 3. 24.에 건설을 시작하여, 1969. 7. 21. 전 구간을 개통하였다. 경부선은 1968년에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건설에 착수하여, 1970. 7. 7. 전 구간을 개통하였다(한국도로공사50년사편찬위원회, 2019:538).¹⁾

그 후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더불어 50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매우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를 건설해 왔다. 그래서 2020년 말 현재 전국 41개 노선에 4,848km의 고속도로를 운영 중에 있다(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 착

공식 당시에 비해 10배가 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송호열, 2020b:2).

고속국도를 비롯한 각종 도로의 급속한 보급으로 전국의 도로가 거미줄처럼 상호 연결되면서 고속국도와 고속국도, 고속국도와 일반도로의 연결도 자연스럽게 증가해 왔다. 도로와 도로가 연결되는 곳을 교차로(交叉路)라고 한다. 이 중 고속국도와 고속국도가 상호 연결되는 곳을 분기점(分岐點)이라고 하며, 고속국도와 일반도로가 연결되는 곳을 나들목(Interchange, IC)이라고 한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교차로의 형태가 중요하다. 평면교차로보다는 입체

*서원대학교 전 총장(Former President of Seowon University, shy6008@chol.com)

교차로가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지만, 입체교차로는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며, 주행거리가 길어서 연료를 더 많이 소모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단점도 있다(국토교통부, 2020:405-407). 물론 전반적으로는 단점에 비해 장점이 훨씬 더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고속국도 나들목은 입체교차로 형태로 설치한다.

주간선도로인 고속국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입체교차로 설계 지침」에 따라, 입체교차로를 설치해야 하며, 도로의 기능 및 형태, 교통량(시기별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설치 시점 결정), 도로 및 주변 지형 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국토교통부, 2015:11).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기술 발달과 더불어 각종 인공시설물이 급속도로 증가해 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통 관련 시설들이다. 고속국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등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송호열, 2020c:24).

비록 형태는 달라졌지만 지도는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분포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다. 지도는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속성정보 중 지명은 필수 요소이다. 인간은 1차적으로 해당 지역의 정보를 지명을 통해 획득한다(송호열, 2020c:24).

우리나라 고속국도의 일천한 역사에 비해 고속국도 관련 연구 성과는 매우 탁월하고 풍부하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공학적인 연구들이고, 고속국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선명, 분기점, 나들목 등 주요 시설물 자체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주요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송호열, 2020b:2).

이번에는 분기점 및 휴게소에 이어 나들목의 명칭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지명 연구자들의 전통적인 관심사인 음절, 어종, 생성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송호열, 2020c:24-25).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서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분석한 분포 특성은 명칭 특성과 성격이 상이하다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을 수용하여 별도로 작성하였다.

나들목의 정확한 위치와 명칭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정보 공개 청구 제도를 통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나들목 및 분기점 현황 자료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국토정보맵’, ‘네이버지도’ 및 ‘카카오맵’을 이용하여 대조, 확인하였다.

나들목 명칭의 유형 분류는 송호열(2017:45; 2018a:32)이 새로 고안하여 제시한 지명 유형 분류표를 따랐다. 지

명 유형 분류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나들목 명칭에 대해서는 송호열(2018b)의 발표문에 따라 분류하고 적용하였다(송호열, 2018c:46).

그리고 후부(後部) 요소인 ‘나들목’(특정 항목의 경우, ‘하이패스나들목’)을 제외한 전부(前部) 요소만을 대상으로 언어적, 지리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행정구역명 관련 나들목 명칭의 한자명은 「한국의 지명 변천」(송호열, 2006), 「한국지명유래집」 각 편(국토지리정보원, 2008; 2010a; 2010b; 2011)을 통해 파악, 특정하였으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두산백과,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越智唯七, 1917) 등도 일부 참조하였다.

II. 본론

1. 고속국도 나들목 현황

나들목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나들목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가 2020. 12.에 공개한 「나들목 및 분기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속국도 전체의 나들목 현황을 정리하였다. 이 현황 자료에는 민자관리노선의 나들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각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웹사이트, 국토정보맵,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필자가 추가하였다.

2017년부터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들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17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본선 연결형과 휴게소 연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본선 연결형은 7개(북안, 유천, 임고, 동둔내, 동여주, 서군위, 서함양)이고, 휴게소(또는 옛 휴게소) 연결형²⁾은 10개(삼성, 신둔, 양촌, 옥산, 구병산, 남양평, 북현풍, 중앙탑, 통도사, 김해가야)이다.

한국도로공사 현황 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것 중에는 고속국도와 일반도로 접속부에 위치한 나들목이 많은데, 비록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고속국도 진출입 시설로서 기능한다면 고속국도 나들목으로 보았다.³⁾⁴⁾ 두 노선 모두에 연결되어 있는 나들목의 경우⁵⁾ 한 노선에만 포함하였고, 분기점에 위치해 있더라도 나들목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분명한 곳⁶⁾은 나들목에 포함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완성한 우리나라 고속국도 나들목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우리나라 고속국도 나들목 현황

노선		나들목 명칭	수
번호	명칭		
1	경부선	구서(久瑞), 영락(永樂), 노포(老圃), 양산(梁山), 통도사하이패스(通度寺hi-pass), 통도사(通度寺), 서울산(西蔚山), 활천(活川), 경주(慶州), 건천(乾川), 영천(永川), 경산(慶山), 북대구(北大邱), 칠곡물류(漆谷物流), 왜관(倭館), 남구미(南龜尾), 구미(龜尾), 동김천(東金泉), 김천(金泉), 추풍령(秋風嶺), 황간(黃澗), 영동(永同), 금강(鎭江), 옥천(沃川), 대전(大田), 신탄진(新澗津), 남청주(南淸州), 청주(淸州), 옥산하이패스(玉山hi-pass), 목천(木川), 천안(天安), 북천안(北天安), 안성(安城), 오산(烏山), 기흥동탄(器興東灘), 기흥(器興), 수원신갈(水原新葛), 판교(板橋), 대왕판교(大王板橋), 양재(良才)	40
15	서해안선	일로(一老), 무안(務安), 함평(咸平), 영광(靈光), 고창(高敞), 선운산(禪雲山), 줄포(茁浦), 부안(扶安), 서김제(西金堤), 동군산(東群山), 군산(群山), 서천(舒川), 춘장대(春長臺), 무창포(武昌浦), 대천(大川), 광천(廣川), 홍성(洪城), 해미(海美), 서산(瑞山), 당진(唐津), 송악(松嶽), 서평택(西平澤), 발안(發安), 비봉(飛鳳), 매송(梅松), 목감(牧甘), 광명역(光明驛), 금천(衿川)	28
151	서천~공주선	동서천(東舒川), 서부여(西扶餘), 부여(扶餘), 청양(靑陽), 서공주(西公州)	5
153	평택~시흥선	조암(朝巖), 송산마도(松山麻道), 남안산(南安山)	3
17	평택~화성선	오성(梧城), 어연(魚淵), 양감(楊甘), 향남(鄉南) / 금곡(金谷), 동안산당수(東安山棠樹), 남군포(南軍浦), 소하(所下)	16
	수원~광명선		
	서울~문산선	남고양(南高陽), 흥도(興道), 사리현(沙里峴), 북고양설문(北高陽雪門), 금촌(金村), 월릉(月籠), 산단(産團), 내포(內浦)	
171	오산~화성선	안녕(安寧) / 흥덕(興德), 광교상현(光教上峴), 서수지(西水枝), 서분당(西盆唐), 서판교(西板橋), 고등(高登), 현릉(獻陵)	8
	용인~서울선		
25	호남선 (논산-천안선 포함)	승주(昇州), 주암(住岩), 석곡(石谷), 곡성(谷城), 옥과(玉果), 창평(昌平), 문흥(文興), 동광주(東光州), 용봉(龍鳳), 서광주(西光州), 동림(東林), 산월(山月), 광산(光山), 북광산(北光山), 장성(長城), 백양사(白羊寺), 내장산(內藏山), 정읍(井邑), 태인(泰仁), 금산사(金山寺), 김제(金堤), 서전주(西全州), 전주(全州), 삼례(參禮), 익산(益山) / 연무(鍊武), 서논산(西論山), 탄천(灘川), 남공주(南公州), 정안(正安), 남풍세(南豐歲), 남천안(南天安)	32
251	호남선의 지선	논산(論山), 양촌하이패스(陽村hi-pass), 계룡(鷄籠), 유성(儒城), 북대전(北大田)	5
253	고창~담양선	남고창(南高敞), 장성물류(長城物流), 북광주(北光州)	3
27	순천~완주선	동순천(東順天), 황전(黃田), 구례화엄사(求禮華嚴寺), 서남원(西南原), 북남원(北南原), 오수(葵樹), 임실(任實), 상관(上關), 동전주(東全州)	9
29	세종~포천선 (구리~포천 구간) (양주 지선 포함)	남구리(南九里), 중랑(中浪), 남별내(南別內), 동의정부(東議政府), 민락(民樂), 소흥(蘇興), 선단(仙壇), 포천(抱川), 신북(新北) / 옥정(玉井), 양주(楊州)	11
35	중부선 (통영-대전선 포함)	통영(統營), 북통영(北統營), 동고성(東固城), 고성(固城), 연화산(蓮花山), 서진주(西晉州), 단성(丹城), 산청(山淸), 생초(生草), 지곡(池谷), 서상(西上), 덕유산(德裕山), 무주(茂朱), 금산(鎭山), 추부(秋富), 남대전(南大田), 판암(板岩) / 서청주(西淸州), 오창(梧倉), 증평(曾坪), 진천(鎭川), 대소(大所), 삼성하이패스(三成hi-pass), 일죽(一竹), 남이천(南利川), 서이천(西利川), 신둔하이패스(新屯hi-pass), 곤지암(昆池岩), 광주(廣州), 하남(河南)	30
37	제2중부선		
45	중부내륙선	내서(內西), 칠서(漆西), 남지(南旨), ⁷⁾ 영산(靈山), 창녕(昌寧), 남성주(南星州), 성주(星州), 남김천(南金泉), 선산(善山), 상주(尙州), 북상주(北尙州), 점촌함창(店村咸昌), 문경새재(聞慶새재), 연풍(延豐), 괴산(槐山), 충주(忠州), 중앙탐하이패스(中央探hi-pass), 북충주(北忠州), 감곡(甘谷), 남여주(南驪州), 서여주(西驪州), 북여주(北驪州), 남양평하이패스(南楊平hi-pass), 양평(楊平)	24
451	중부내륙선의 지선	현풍(玄風), 북현풍하이패스(北玄風hi-pass), 달성(達城), 화원옥포(花園玉浦), 유천하이패스(流川hi-pass), 남대구(南大邱), 서대구(西大邱)	7

표 1. 우리나라 고속국도 나들목 현황(계속)

노선		나들목 명칭	수
번호	명칭		
55	중앙선 (부산-대구선 포함)	삼락(三樂), 김해공항(金海空港), 대저(大渚), 초정(草亭), 대동(大東), 상동(上東), 삼랑진(三浪津), 남밀양(南密陽), 밀양(密陽), 청도(淸道), 수성(壽城), 동대구(東大邱), 칠곡(漆谷), 다부(多富), 가산(架山), 군위(軍威), 의성(義城), 남안동(南安東), 서안동(西安東), 예천(禮泉), 영주(榮州), 풍기(豊基), 단양(丹陽), 북단양(北丹陽), 남제천(南堤川), 제천(堤川), 신림(神林), 남원주(南原州), 북원주(北原州), 횡성(橫城), 홍천(洪川), 춘천(春川)	32
551	중앙선의 지선	물금(勿禁), 남양산(南梁山)	2
65	동해선	부산-울산 구간	23
		울산-포항 구간	
		삼척-속초 구간	
10	남해선	서영암(西靈巖), 서호학산(西湖鶴山), 강진무위사(康津無爲寺), 장흥(長興), 보성(寶城), 벌교(筏橋), 고흥(高興), 순천만(順天灣), 도룡(道弄), 해룡(海龍) / 서순천(西順天), 순천(順天), 광양(光陽), 동광양(東光陽), 옥곡(玉谷), 진월(津月), 하동(河東), 진교(辰橋), 곤양(昆陽), 축동(楸洞), 사천(泗川), 진주(晉州), 문산(文山), 진성(晉城), 지수(智水), 군북(郡北), 장지(長池), 함안(咸安), 북창원(北昌原), 동창원(東昌原), 진례(進禮), 서김해(西金海), 동김해(東金海), 덕천(德川)	34
102	남해 제1지선	서마산(西馬山), 동마산(東馬山)	2
104	남해 제2지선	장유(長有), 가락(駕洛), 서부산(西釜山), 사상(沙上)	4
105	남해 제3지선	진해(鎭海), 대청(大淸), 남진례(南進禮)	3
12	광주-대구선 (무안-광주선 포함)	무안공항(務安空港), 북무안(北務安), 동함평(東咸平), 문평(文平), 나주(羅州), 서광산(西光山), 운수(雲水) / 담양(潭陽), 순창(淳昌), 남원(南原), 동남원(東南原), 지리산(智異山), 서함양하이패스(西咸陽hi-pass), 함양(咸陽), 거창(居昌), 가조(加祚), ⁸⁾ 해인사(海印寺), 고령(高靈), 동고령(東高靈)	19
14	함양-울산선	배내골(배내골)	1
16	울산선	장검(長劍), 울산(蔚山)	2
20	새만금-포항선 (지선 포함)	완주(完州), 소양(所陽) / 진안(鎭安), 장수(長水) / 팔공산(八公山), 청통외촌(淸通瓦村), 북영천(北永川), 임고하이패스(臨高hi-pass), 서포항(西浦項), 학전(鶴田), 포항(浦項)	11
30	당진-영덕선	면천(沔川), 고덕(古德), 예산수덕사(禮山修德寺), 신양(新陽), 유구(維鳩), 마곡사(麻谷寺), 공주(公州), 서세종(西世宗), 남세종(南世宗) / 문의(文義), 회인(懷仁), 보은(報恩), 속리산(俗離山), 구명산하이패스(九屏山hi-pass), 화서(化西), 남상주(南尙州), 동상주(東尙州), 서의성(西義城), 북의성(北義城), 동안동(東安東), 청송(靑松), 동청송영양(東靑松英陽), 영덕(盈德)	23
301	상주-영천선	도개(桃開), 서군위하이패스(西軍威hi-pass), 동군위(東軍威), 신녕(新寧), 동영천(東永川), 북안하이패스(北安hi-pass)	6
32	옥산-오창선	서오창(西梧倉)	1
40	평택-제천선	청북(靑北), 평택고덕(平澤古德), 송탄(松炭), 서안성(西安城), 남안성(南安城), 북진천(北鎭川), 금왕꽃동네(金旺꽃동네), 음성(陰城), 서충주(西忠州), 동충주(東忠州)	10
50	영동선	서안산(西安山), 안산(安山), 군포(軍浦), 동군포(東軍浦), 부곡(富谷), 북수원(北水原), 동수원(東水原), 마성(麻城), 용인(龍仁), 양지(陽智), 덕평(德坪), 이천(利川), 여주(驪州), 문막(文幕), 원주(原州), 새말(새말), 둔내(屯內), 동둔내하이패스(東屯內hi-pass), 면은(綿溫), 평창(平昌), 속사(束沙), 진부(珍富), 대관령(大關嶺)	23
52	광주-원주선	초월(草月), 동곤지암(東昆池岩), 흥천이포(興川梨浦), 대신(大神), 동여주하이패스(東驪州hi-pass), 동양평(東楊平), 서원주(西原州)	7

표 1. 우리나라 고속국도 나들목 현황(계속)

노선		나들목 명칭	수
번호	명칭		
60	서울-양양선	미사(美沙), 덕소삼패(德沼三陴), 화도(和道), 서종(西宗), 설악(雪岳), 강촌(江村), 남춘천(南春川), 조양(朝陽), 동홍천(東洪川), 내촌(乃村), 인제(麟蹄), 서양양(西襄陽), 양양(襄陽)	13
100	수도권 제1순환선	성남(城南), 송파(松坡), 서하남(西河南), 상일(上一), 강일(江一), 토평(土坪), 남양주(南楊州), 구리(九里), 퇴계원(退溪院), 별내(別內), 의정부(議政府), 호원(虎院), 송추(松楸), 통일로(統一路), 고양(高陽), 일산(一山), 김포(金浦), 계양(桂陽), 중동(中洞), 송내(松內), 장수(長壽), 시흥(始興), 산본(山本), 평촌(坪村)	24
110	제2경인선	영종(永宗), 송도(松島), 옥련(玉連), 능해(陵海), 문학(文鶴), 남동(南洞), 신천(新川), 광명(光明), 석수(石水), 삼막(三幕), 북의왕(北儀旺), 북청계(北淸溪), 동판교(東板橋), 여수대로(麗水大路)	14
120	경인선	서인천(西仁川), 부평(富平), 부천(富川), 신월(新月)	4
130	인천국제공항선	신불(薪佛), 금산(錦山), 북인천(北仁川), 청라(靑羅), 김포공항(金浦空港)	5
300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西大田), 안영(安永)	2
400	수도권 제2순환선 (봉담~동탄 구간) (인천~김포 구간)	북오산(北烏山), 봉담(峰潭), 정남(正南) / 남청라(南靑羅), 북청라(北靑羅), 검단양촌(黔丹陽村), 대곶(大串), 서김포통진(西金浦通津)	8
600	부산외곽순환선	진영(進永), 한림(翰林), 광재(光在), 김해가야하이패스(金海伽倻i-pass), 금정(金井), 기장철마(機張鐵馬)	6
합계			500

※ 각 노선별 나들목 명칭은 남쪽 또는 서쪽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기재하였음.

※ 한자명은 「한국의 지명 변천」, 「한국지명유래집」 각 편 등을 통해 확인하였음.

2. 어종 및 음절 특성

나들목 명칭을 어종에 따라서, 숫자 지명, 고유어 지명, 구미어(외래어) 지명, 한자어 지명으로 구분하여 빈도를 분석하였다(송호열, 2017:46). 전체 500개 나들목 명칭 중 숫자 지명, 구미어(외래어) 지명은 없고, 한자어 지명과 고유어 지명, 혼종 지명만 있다. 한자어 지명은 479개(95.8%)로 압도적이고, 고유어 지명은 2개(0.4%), 혼종 지명은 19개(3.8%)이다. 나들목의 한자명은 표 1의 한글 명칭 뒤에 병기하였다.

고유어 명칭으로는 최근 신설된 함양울산선 밀양-울산 구간의 배내골IC와 영동선의 새말IC가 있다. 배내골은 경남 양산시 원동면 대리 및 선리에서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梨川里)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긴 골짜기이다. 동리 명칭은 이천리로 한자어인데, 골짜기 명칭은 배내골로 고유어이다. 새말은 강원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⁹⁾ 한자어로는 신촌(新村)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시 지명에 별도의 한자 표기는 없다.

혼종 명칭은 17개의 하이패스IC(북안, 삼성, 신둔, 양촌, 옥산, 유천, 임고, 구병산, 남양평, 동둔내, 동여주, 북현풍, 서군위, 서함양, 중앙탑, 통도사, 김해가야)와 2개의 IC(문경새재, 금왕꽃동네)로 대별된다. 하이패스IC는 모두 한자어와 구미어의 혼종이다. 하이패스까지 후부요소로 본다면, 이들 나들목 명칭 역시 한자어 지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문경새재¹⁰⁾와 금왕꽃동네¹¹⁾는 한자어와 고유어의 혼종이다.

선행 연구인 우리나라 288개 대로명의 경우, 한자어가 89.6%(혼종 포함 시 93.8%)로 압도적이었고(송호열, 2017:48), 우리나라 비수도권의 282개 도시철도 역명의 경우, 한자어가 89.0%로 역시 압도적으로 많았다(송호열, 2018a:41). 2018년 경찰서명의 경우, 한자어가 87.8%(혼종 포함 시 100%)로 압도적이었고(송호열, 2019:30), 세무서명의 경우, 전 기간을 통하여 예외 없이 100% 한자어였다(송호열, 2020a:61). 우리나라 108개 고속국도 분기점의 경우, 한자어가 99.1%로 압도적이었고(송호열, 2020b:7), 우리나라 136개 고속국도 휴게소의 경우, 한자어가 89.7%(혼종 포

함 시 100%)로 압도적이었다(송호열, 2020c:31). 선행 연구들과 유사하게 나들목 명칭도 한자어가 95.8%(혼중 포함 시 99.6%)로 압도적이다.

음절의 경우, 후부 요소(나들목 또는 IC)를 제외한 전부 요소를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2음절이 303개(60.6%)로 가장 많았고, 3음절이 149개(29.8%), 4음절이 23개(4.6%), 5음절이 8개(1.6%)이다. 6음절이 7개(1.4%), 7음절이 9개(1.8%), 8음절이 1개(0.2%)이다. 6음절 이상은 모두 하이패스IC이다. 나들목 명칭의 음절은 2-8음절(하이패스까지 후부 요소로 볼 경우, 2-5음절)¹²⁾로, 지수분포(左偏布)에 가깝다. 평균 2.6음절로 상당히 짧았다.

2음절 명칭 303개 중 8개(금강/ 금산, 문수/ 신불-자연지명(4); 현릉/ 송추, 영락/ 산단-인문지명(4))를 제외한 295개는 모두 행정구역명 관련 명칭이다. 3음절 명칭 149개 중 29개(추풍령/ 배내골/ 내장산, 덕유산, 선운산, 속리산, 연화산, 지리산, 팔공산/ 순천만-자연지명(10); 광명역, 통일로/ 무창포, 춘장대, 하조대/ 금산사, 마곡사, 백양사, 통도사, 해인사-인문지명(10); 남양주, 의정부, 해운대/ 곤지암, 대관령, 사리현, 삼랑진, 신탄진, 퇴계원-행정지명(9))를 제외한 120개는 모두 결합지명(방위명 + 행정구역명)이다.

4음절 명칭 23개 중 4개(김포공항, 김해공항, 무안공항, 여수대로)는 교통 관련 명칭이고, 13개(기장철마, 기흥동탄, 수원신갈, 평택고덕/ 광교상행, 검단양촌, 대왕판교, 서호학산, 송산마도, 점촌합창, 청통와촌, 화원옥포/ 덕소삼패)는 행정구역명들의 결합지명이며, 6개는 결합지명이다. 6개 결합지명을 세분해 보면, 1개(문경새재)는 행정구역명과 자연지명(고개 명칭)의 결합지명이고, 3개(칠곡물류, 장성물류/ 흥천이포)는 행정지명과 인문지명의 결합지명이며, 2개(동의정부, 동곤지암)는 자연지명(방위명)과 행정구역명의 결합지명이다.

5음절 명칭 8개는 모두 결합지명인데, 4개(강진무위사, 구례화엄사, 예산수덕사/ 금왕꽃동네)는 행정구역명과 인문지명(주로 종교시설)을 결합한 지명이고, 4개(동안산당수, 동청송양양, 북교양설문, 서김포토진)는 이중결합지명이다. 6음절 이상인 하이패스나들목 명칭 중 하이패스까지 후부 요소로 볼 때, 2개(구병산-자연지명; 통도사-인문지명)를 제외한 15개는 행정구역명(8개; 2음절-북안, 삼성, 신둔, 양촌, 옥산, 유천, 임고; 3음절-중앙탑)과 결합지명(7개; 3음절-남양평, 동둔내, 동여주, 복현풍, 서군위, 서함양; 4음절-김해가야)이다.

선행 연구인 우리나라 288개 대로명의 경우, 평균 2.30음절이었고(송호열, 2017:45-46), 우리나라 비수도권의 282개 도시철도 역명의 경우, 평균 2.7음절이었다(송호열, 2018a:40). 2018년 경찰서명의 경우, 평균 2.95음절이었고(송호열, 2019:30), 2020년 세무서명의 경우, 평균 2.24음절이었다(송호열, 2020a:52). 우리나라 고속국도 분기점 명칭의 경우, 평균 2.17음절로 매우 짧았으며(송호열, 2020b:8), 우리나라 고속국도 휴게소 명칭의 경우, 평균 2.75음절이었다(송호열, 2020c:31). 선행 연구 결과에 비해 나들목 명칭의 음절은 약간 긴 편에 속한다.

3. 생성 특성

한국도로공사는 「시설물 명칭 부여 기준」¹³⁾¹⁴⁾을 매우 위계적으로 정하여 적용하고 있다(송호열, 2020c:31). 그 기준은 첫째, 출입시설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명칭을 부여한다. 단, 출입시설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설치할 경우, 이중지명(행정구역명의 결합 형태)을 부여할 수 있다. 행정구역명은 톨게이트(영업소) 소재지를 우선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이미 부여하였을 경우, 방위 명칭(동·서·남·북)과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조합한 명칭을 부여한다. 방위 명칭을 앞에 붙인다. 셋째,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요구가 있고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주요 시설이나 인지도 높은 시설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넷째, 1항 및 2항에 해당되는 명칭을 이미 부여하였을 경우, 차순위 행정구역명(읍·면·동)을 부여할 수 있다(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 2016).¹⁵⁾

지명의 생성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용이하지 않는데, 나들목 명칭 역시 유연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가 상당하였다(송호열, 2020c:32). 이럴 경우에는 분류 기준을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하고 이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혼란을 저감시킬 수 있다.

나들목 소재지의 행정구역명이 주변 자연지명(예, 강촌, 광재, 대관령, 사리현, 삼막) 또는 인문지명(예, 중앙탑)과 동일할 경우, 행정구역명을 우선하였다. 이는 한국도로공사의 나들목 명칭 부여 기준에도 부합한다.

행정구역명 관련 나들목 명칭 중 위계가 다른데 고유 지명(전부 요소)이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한 나들목들이 있다. 이 경우 상위 행정구역명에서 연유한 것으로 분류하였다.¹⁶⁾ 이 역시 한국도로공사의 나들목 명칭 부여 기

준을 따른 것이다.

법정구명이 아니라 행정구명을 따랐을 경우에도, 구로 분류하였다. 17개 하이패스나들목의 경우, 본절에서는 하이패스나들목 전체를 속성 지명(후부 요소)으로 보고 유연성을 파악하였다. 금산사, 마곡사, 백양사, 통도사, 해인사 등은 종교시설이기도 하지만 주요 관광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둘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해도 되지만, 본절에서는 고유 속성을 우선하여 모두 종교시설로 분류하였다.

특별한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나들목 명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상세한 설명을 통해 그 유래를 밝힌다. 용인 서울선 흥덕IC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인 흥덕지구(기흥과 영덕에서 한 글자씩 따서 작명)와 연결되는데, 규모가 커서 읍·면·동 수준의 행정구역으로 분류하였다.

제2경인선 능해IC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해 있는데, 1.7km 북쪽의 수인분당선 승의역 인근에 능해길이 있고, 승의역 자리가 능안삼거리이다. 현 승의동 지역에 여의실(여우실, 여의리)이 있었고, 이곳에 능안(陵內)이라는 마을 또는 골짜기가 있었다(인천광역시 남구청 문화예술과, 2015:344-349). 능해IC의 위치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바닷가였다. 명확한 유래를 찾지는 못하였지만, 이런 근거로 볼 때 마을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선 신불IC는 인천 중구 영종동(법정동은 운서동)에 있는데, 이곳은 원래 부천군 관할이었고, 1973년 용진군에 편입되었으며,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1989년 인천직할시 중구에 편입되었다(국토지리정보원, 2008:159-160). 당시에 영종도, 용유도, 삼목도와 더불어 이곳에 있던 신불도를 연결하고, 그 사이에 있던 간석지를 매립하여 공항을 건설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금은 신불도가 사실상 사라졌지만, 자연지명 중 지형의 해양지명으로 분류하였다.

경부선 남단의 영락IC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 나들목 현황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고속도로 나들목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나들목 주변에는 대규모 장례식장,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을 갖춘 영락공원이 있다. 현재 부산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지명 분류표에 적합한 항목이 없어서 인문지명 중 사회(공공)의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평택문산선의 산단IC는 경기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에 있는데, (인접한 곳부터) 북쪽에 파주월롱침단일반산업

단지, 남쪽에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서쪽에 파주탄현국가산업단지, 파주축현2일반산업단지, 파주축현일반산업단지 등 여러 산업단지(産團)가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인문지명 중 사회(민간)(경제 활동 및 관련 시설)의 제조업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대천시 1986년 보령군에서 분리, 승격되었다가 1995년 다시 보령군과 통합되어 보령시가 되었다(송호열, 2006:331). 서해안선 대천IC가 위치한 서천-당진 구간이 개통된 것은 2001년이므로(송호열, 2020d:134), 이전 행정구역명인 대천시가 아니라 현 소재지인 대천5동에서 유래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중부내륙선 선산IC는 선산군이 구미시로 통합된 시기가 1995년이므로(송호열, 2006:91,442), 중부내륙선의 해당 구간이 개통된 것은 2001년이므로(송호열, 2020d:134) 이전 행정구역명인 선산군이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선산읍에서 유래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는 2010년 7월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성산구, 의창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등 5개 행정구로 재편되었다(국토지리정보원, 2011:524). 이와 관련된 나들목 명칭은 동마산, 서마산, 진해이다.

남해제1지선은 1973년에 개통되었고(송호열, 2020d:133), 마산시는 2010년까지 존속되었으므로, 서마산IC와 동마산IC는 마산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남해제3지선 진해IC는 2017년에 개통되었으므로(송호열, 2020d:136), 2010년 재편된 진해구에서 유래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울산선과 동해선이 교차하는 울산IC에 위치한 장검IC는 행정구역상으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속한다. 그런데 법정리인 굴화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굴화동을 비롯하여 괴정동, 백천동, 장검동을 통합하여 범서면에 속하게 되었다(민공기, 2020:293). 아주 오랜 과거부터 이곳에 굴화리와 장검리가 존재했었고, 지금도 나들목 근처에 장검마을이 존재하며, 장검과 관련된 각종 지명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행정지명 중 마을 관련 지명으로 분류하였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동대구IC의 경우, 행정지명 중 결합지명(시·군·구명 + 시·도명)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자연지명(분포지명)과 행정지명(시·도명)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아 결합지명으로 분류하였다(송호열, 2020b:8). 강원 양양군 서면에 위치한 서양양IC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위치한 남청주IC의 경우도 유사하다고 보아 결합지명으로 분류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나들목 명칭의 생성 유형을 표 2와 같이 분류하였다.

대분류에 따르면, 500개 나들목 중 행정지명(325개, 65.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결합지명(141개, 28.2%), 인문지명(19개, 3.8%), 자연지명(15개, 3.0%) 순이었다. 결합지명의 경우, 141개 모두 행정지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행정구역명 관련 나들목 명칭은 93.2%이다. 고속국도 분기점 명칭에 비해 행정지명의 비중이 낮고, 결합지명과 자연지명의 비중이 높으며, 고속국도 휴게소 명칭에 비해 결합지명의 비중이 높고, 자연지명과 인문지명의 비중이 낮다.

자연지명 15개는 모두 지형 관련 지명이다. 이 중 순천만(해안 지형)과 신불(해양 지형)을 제외한 13개가 육상

지형과 관련된 지명이다. 육상 지형 관련 지명 13개 중 10개는 산명이고, 나머지는 고개 이름, 계곡명, 하천명이다.

인문지명은 19개에 불과하지만, 종류는 다양하다. 현릉 IC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현인릉¹⁷⁾과 관련이 있고, 영락IC와 산단IC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나들목 인근의 영락공원 및 산업단지들과 관련이 있다.

나머지 16개는 교통 관련 명칭과 종교시설 관련 명칭 각 6개, 관광지 관련 명칭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세분해 보면, 교통 관련 명칭은 공항명 3개, KTX 역명 1개, 도로명 2개로 구성되어 있고, 관광지는 해수욕장 3개, 계곡 1개¹⁸⁾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시설은 모두 불교 사찰들이었다.

325개 행정지명 관련 나들목 명칭을 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세분해 보면, 읍·면·동 관련 명칭이 164개(32.8%)

표 2. 생성 유형별 나들목 명칭

생성 유형			나들목	나들목의 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	중	대
1. 자연	1) 지형	육상	구병산, 금산, 내장산, 덕유산, 문수, 선운산, 속리산, 연화산, 지리산, 팔공산 / 추풍령 / 배내골 / 금강	13	15	15
		해안	순천만	1		
		해양	신불	1		
2. 인문	1) 역사	유적	현릉	1	1	19
	2) 사회(공공)	교통	김포공항, 김해공항, 무안공항 / 광명역 / 여수대로, 통일로	6	17	
		관광	무창포, 춘장대, 하조대 / 송추	4		
		종교	금산사, 마곡사, 백양사, 통도사, 통도사(h), 해인사	6		
		기타	영락	1		
3) 사회(민간)	산업	산단	1	1		
3. 행정	2) 시·도	시	대전, 울산	2	2	124
	3) 시·군·구	시	강릉, 경산, 경주, 계룡, 고양, 공주, 광명, 광양, 광주, 구리, 구미, 군산, 군포, 김제, 김천, 김포, 나주, 남양주, 남원, 논산, 당진, 동해, 밀양, 부천, 사천, 삼척, 상주, 서산, 성남, 속초, 순천, 시흥, 안산, 안성, 양산, 양주, 여주, 영주, 영천, 오산, 용인, 원주, 의정부, 이천, 익산, 전주, 정읍, 제천, 진주, 천안, 청주, 춘천, 충주, 통영, 포천, 포항, 하남	57		
		군	거창, 고령, 고성, 고창, 고흥, 곡성, 괴산, 군위, 금산, 기장, 단양, 달성, 담양, 무안, 무주, 보성, 보은, 부안, 부여, 산청, 서천, 성주, 순창, 양양, 양평, 영광, 영덕, 영동, 예천, 옥천, 원주, 음성, 의성, 인제, 임실, 장성, 장수, 장흥, 증평, 진안, 진천, 창녕, 청도, 청송, 청양, 평창, 하동, 함안, 함양, 함평, 홍성, 홍천, 횡성	53		
		구	계양, 광산, 금정, 금천, 기흥, 남동, 부평, 사상, 송파, 수성, 유성, 중랑, 진해, 해운대 ¹⁹⁾	14		

표 2. 생성 유형별 나들목 명칭(계속)

대분류	생성 유형		나들목	나들목의 수					
	중분류	소분류		소	중	대			
4) 읍·면·동	읍	읍	건천, 곤지암, 광천, 남지, 내서, 목천, 문막, 문산, 물금, 벌교, 범서, 봉담, 삼랑진, 삼례, 선산, 소흘, 송악, 승주, 연무, 오창, 온양, 왜관, 유구, 일곡, 장안, 진영, 청량, 청북, 초월, 퇴계원, 풍기, 향남, 현풍, 화도	34	164	325			
		면	가산, 가조, 감곡, 고덕, 곤양, 군북, 근덕, 내촌, 단성, 대곡, 대관령, 대동, 대소, 대신, 도계, 둔내, 매송, 면천, 문의, 문평, 북안, 비봉, 삼성, 상관, 상동, 생초, 서상, 서종, 석곡, 설악, 소양, 신녕, 신둔, 신림, 신북, 신양, 양감, 양촌, 연풍, 영산, 오성, 오수, 옥계, 옥곡, 옥과, 옥산, 월릉, 일죽, 임고, 정남, 정안, 주암, 줄포, 중앙탑, 지곡, 지수, 진교, 진례, 진부, 진성, 진월, 장평, 추부, 축동, 칠서, 탄천, 태인, 한림, 해룡, 해미, 화서, 황간, 황전, 회인	74					
		동	가락, 강일, 고등, 구서, 금곡, 금촌, 노포, 대저, 대천, 대청, 덕천, 동림, 망상, 목감, 문학, 문흥, 미사, 민락, 별내, 부곡, 사리현, 산본, 산월, 삼락, 상일, 석수, 선단, 소하, 송내, 송도, 송탄, 신월, 신천, 신탄진, 안녕, 안영, 양재, 영종, 옥련, 옥정, 용봉, 운수, 유천, 일산, 장수, 장유, 중동, 청라, 칠곡, 토평, 판교, 판암, 평촌, 호원, 흥도	55					
		지구	홍덕	1					
	5) 리·마을	리	강촌, 내포, 다부, 덕평, 도룡, 마성, 면은, 발안, 속사, 양지, 어연, 장검, 장지, 조암, 조양, 초정, 학전, 활천	18			22		
		마을	광재, 능해, 삼막, 새말	4					
	6) 결합			기흥동탄, 기장철마, 수원신갈, 평택고덕 / 검단양촌, 광교상현, 대왕판교, 서호화산, 송산마도, 청통와촌, 점촌함창, 화원옥포 / 덕소삼패				13	
	4. 결합	2) 행정+인문		김해가야 // 홍천이포 // 장성물류, 칠곡물류 // 강진무위사, 구례화엄사, 예산수덕사 / 금왕꽃동네				8	
		3) 자연+행정	지형	문경새재			1	129	141
			방위				남대구, 남대전, 남세종, 동광주, 동대구, 동부산, 북광주, 북대구, 북대전, 북인천, 서광주, 서대구, 서대전, 서부산, 서세종, 서울산, 서인천 ²⁰⁾ // 남강릉, 남경주, 남고양, 남공주, 남구리, 남구미, 남군포, 남김천, 남밀양, 남상주, 남안동, 남안산, 남안성, 남양산, 남여주, 남원주, 남이천, 남계천, 남천안, 남청주, 남춘천, 남포항, 동경주, 동광양, 동군산, 동군포, 동김천, 동김해, 동남원, 동마산, 동상주, 동수원, 동순천, 동안동, 동여주, 동영천, 동의정부, 동전주, 동창원, 동충주, 북강릉, 북남원, 북상주, 북수원, 북여주, 북영천, 북오산, 북원주, 북의왕, 북창원, 북천안, 북충주, 북통영, 서공주, 서김제, 서김해, 서남원, 서논산, 서마산, 서순천, 서안동, 서안산, 서안성, 서여주, 서원주, 서이천, 서진주, 서진주, 서청주, 서충주, 서평택, 서포항, 서하남 / 남고창, 남성주, 남양양, ²¹⁾ 남양평, 동고령, 동고성, 동군위, 동서천, 동양평, 동함평, 동홍천, 북단양, 북무안, 북양양, 북의성, 북진천, 서군위, 서부여, 서양양, 서영암, 서의성, 서함양 / 북광산, 서광산, 서분당, 서수지 // 동곤지암, 북현풍, 서오창 / 남진례, 남풍세, 동둔내 / 남별내, 남청라, 동판교, 북청계, 북청라, 서판교		
4) 이중결합					동청송영양 / 동안산당수, 북고양철문, 서김포통진	4			

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군·구 관련 명칭이 124개(24.8%)로 많았다. 시·군·구 관련 명칭 중에는 시 관련 명칭이 57개(1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군 관련 명칭이 53개(10.6%)로 많았다. 읍·면·동 관련 명칭 중에는 면 관련 명칭이 74개(14.8%)로 가장 많았고, 동 관련 명칭이 55개(11.0%), 읍 관련 명칭이 34개(6.8%)였다.

리·마을 관련 명칭도 22개(4.4%)나 되었는데, 이 중 리 관련 명칭이 18개(3.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개의 행정구역 명칭이 결합된 나들목 명칭은 13개(2.6%)가 있는데, 이 중 4개는 시·군·구 명칭과 읍·면·동 명칭이 결합된 경우이고, 8개는 두 개의 읍·면·동 명칭이 결합된 경우이다. 광역시 명칭 관련 나들목 명칭은 2개(대전, 울산)였다.

결합지명은 고속국도 분기점 명칭은 물론이고, 휴게소 명칭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많다. 141개 결합지명 중 방위와 행정구역명이 결합된 것이 128개(25.6%)로 압도적이다. 이 중에서 광역시 명칭과 결합된 경우가 17개(3.4%)이고, 시·군·구 명칭과 결합된 것이 99개(19.8%, 시-73개, 군-22개, 구-4개)이며, 읍·면·동 명칭과 결합된 경우가 12개(2.4%, 읍-3개, 면-3개, 동-6개)이다.

행정구역 명칭과 인문지명이 결합된 것이 8개인데, 이 중 6개는 시·군 명칭과, 2개는 읍·면 명칭과 관련되어 있다. 이중결합 지명은 4개가 있는데, 모두 방위+행정지명+행정지명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중 동청송영양은 두 행정구역 명칭 모두 군명이고, 나머지 3개는 시 명칭과 읍·면·동 명칭이 결합된 것이다.

나들목 명칭의 명명 유연성을 보면, 행정구역명 관련 명칭이 325개(65.0%)로 다수이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다. 선행 연구에서의 행정구역명 관련 지명의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288개 대로명의 경우 38.9%였고(송호열, 2017:55), 우리나라 비수도권의 282개 도시철도역명의 경우 58.9%였다(송호열, 2018a:45). 우리나라 255개 경찰서명의 경우 82.7%였고(송호열, 2019:30), 2019년의 125개 세무서명의 경우 83.2%였다(송호열, 2020a:62). 108개 고속국도 분기점 명칭의 경우 87.0%였고(송호열, 2020b:8), 136개 고속국도 휴게소 명칭의 경우 66.9%였다(송호열, 2020c:33).²²⁾ 물론 결합지명 중 행정구역 명칭과 관련이 있는 명칭까지 포함한다면 93.2%나 되므로 이렇게 보면 행정구역명 관련 나들목 명칭이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III. 결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부터 고속국도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지난 50년 동안 양적, 질적으로 급성장을 해 왔다. 2020. 12. 현재 고속국도 총연장은 4,848km로 국토 전역을 사통발달 연결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신기술 도입, 노폭 확대, 노면 및 선형 개선을 통한 질적 측면의 발전으로 고속국도 이용자들의 편의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되었다(송호열, 2020b:9).

이처럼 고속국도의 위상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속국도에 관한 연구 성과는 매우 풍부하고 탁월하다. 하지만 정작 고속국도의 기본 시설물 자체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 시설물별로 종합적 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데, 분기점 및 휴게소에 이어 이번에는 500개 나들목의 명칭 특성을 분석하였다(송호열, 2020b:9).

나들목의 명칭 특성은 언어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어종은 500개 중 479개(95.8%)가 한자어였고, 19개가 혼종어였으며, 고유어가 2개였다. 혼종어는 모두 하이패스IC이므로, 하이패스까지 후부 요소로 본다면, 한자어는 99.2%(496개)에 달한다. 음절은 평균 2.60음절로 상당히 짧았고, 뚜렷하지는 않지만 지수분포를 보였다.

명명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행정구역명 관련 나들목 명칭이 6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결합지명이 28.2%로 많았다. 행정지명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행정구역명을 우선하는 「시설물 명칭 부여 기준」의 영향이 크다.

행정지명을 세분해 보면, 시·군·구 관련 명칭(24.8%)과 읍·면·동 관련 명칭(32.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자보다 후자가 더 많았는데, 이는 동일 시·군·구 내에 다수의 나들목이 설치되면서, 「시설물 명칭 부여 기준」의 4항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분기점 및 휴게소 명칭에 비해 결합지명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았는데, 이는 동일 시·군·구 내에 다수의 나들목이 설치되면서 「시설물 명칭 부여 기준」의 2항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자연지명이나 인문지명은 총 6.8%로 다른 시설물과 유사하게 비중이 낮는데, 이들 명칭의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많은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

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임에도, 고속국도의 주요 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였다. 지금부터라도 한국도로공사는 주요 시설물에 관한 주요 속성들을 DB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갱신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송호열, 2020c:36).

우리나라 고속국도는 현재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로 구분된다. 민자고속도로 중 일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대부분은 자본을 투자한 민간회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전자를 민자위탁노선, 후자를 민자관리노선으로 구분하여 칭한다. 이용자들에게는 이런 구분이 의미가 없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규정 상 불가하다며 민자관리노선에 관한 정보를 구분하여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루 속히 정보를 통합 관리해야 할 것이다.

註

- 1) 본고는 고속국도 시설물 중 하나인 나들목에 관한 연구로서, 같은 고속국도 시설물들인 분기점 및 휴게소에 관한 송호열(2020b; 2020c)의 기존 연구와 연구 목적이나 연구 방법 등이 유사하다. 따라서 서론부와 결론부, 국영문 요약 등 여러 곳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그리고 논문 전체의 구조, 분석 내용, 논리 전개 구조 등도 유사한데, 이는 연구 결과의 상호 비교를 위해서 필요하다.
- 2) 삼성 - 음성휴게소(양방), 신둔 - 이천휴게소(상), 양촌 - 옛 양촌휴게소(양방), 옥산 - 옥산휴게소(양방, 상행은 옛 휴게소 부지), 구병산 - 속리산휴게소(상), 남양평 - 간이휴게소 예정 부지(양방), 북한풍 - 현풍휴게소(양방), 중앙탑 - 충주휴게소(양방), 통도사 - 통도사휴게소(하), 김해가야 - 김해금관가야휴게소(양방)
- 3)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경인선 동단의 신월IC, 제2경인선 중간의 능해IC 및 송도IC, 동단의 여수대로IC, 경부선 북단의 양재IC, 새만금포항선의 포항IC, 중앙선 남단의 김해공항IC, 남해선 영암-순천 구간 동단의 해룡IC, 남해선 동단의 덕천IC, 남해제2지선 동단의 사상IC 등이다. 경부선 북단의 양재IC, 경인선 서단의 서인천IC, 제2경인선 여수대로IC, 당진영덕선 영덕IC, 새만

금포항선의 포항IC, 중앙선 남단의 삼락IC는 위와 유사한 위치에 있지만, 한국도로공사 현황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경인선 도화IC 및 가좌IC는 한국도로공사 현황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만, 해당 구간은 이미 인천시에 이관된 상태이므로 분석 대상 나들목에서 제외하였다.

- 4) 구리포천선 남별내IC와 연결되는 덕내로 상에 동별내IC와 서별내IC가 설치되어 있는데, 둘 모두 고속화도로에 속한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덕송내각고속화도로주식회사).
- 5) 중부내륙선과 평택제천선의 북충주IC는 중부내륙선에, 호남선과 남해선의 접속부에 있는 서순천IC는 남해선에, 서울양양선과 수도권제1순환선의 강일IC는 수도권제1순환선에, 울산선과 동해선의 장점IC는 울산선에 포함하였다.
- 6) 중부내륙선과 중부내륙지선(○)의 분기점에 위치한 현풍IC, 서울양양선(○)과 동해선의 분기점에 위치한 양양IC, 동해선(부산울산 구간)(○)과 부산외곽순환선의 분기점에 위치한 기장IC, 중부내륙선(○)과 남해제1지선의 분기점에 위치한 내서IC, 중앙선(○)과 남해선의 분기점에 위치한 대저IC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언급된 나들목 역시 두 노선 중 한 노선(○ 표시한 노선)에만 포함하였다.
- 7) 越智唯七(1917:601)에 의하면, 당시 창녕군 남곡면(南谷面)에 남지리(南旨里)가 기재되어 있다. 남곡면은 1936년 남지면으로 개칭되었고, 1963년 남지읍으로 승격되었다(송호열, 2006:153; 국토지리정보원, 2010a:722). 현재 남지읍의 중심지는 남단의 남지리인데, 남지면 개명 당시에도 이곳이 중심지였고 그 이후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므로, 남지리의 명칭을 따라 남지면으로 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송호열(2006:152)은 ‘南旨邑’으로 표기하였으며, 「두산백과」 역시 동일하게 표기하였는데, 국토지리정보원(2010a:722)은 ‘南池邑’으로 표기하였다. 후자의 한자 표기를 오류라고 판단하여 전자에 따랐다.
- 8) 송호열(2006:18)과 국토지리정보원(2011:825)의 가조면 한자 표기가 ‘加祚面’과 ‘加祖面’으로 상이하다. 두산백과와 거창군 가조면(웹사이트, 우선으로 부면장에게 확인)의 표기는 전자(前者)와 동일하다. 따라서 현재 해당 지역에서 사용(현칭)하고 있는 한자 표기에 따라 전자로 표기하였다. 참고로 1928

- 년 가동면과 가서면을 통합할 때, 옛 가조현의 이름을 따서 가조면으로 정했다고 한다.
- 9) 네이버지도에는 법주리와 우항리 두 곳에 '새말'이 표기되어 있다. 국토정보맵의 고시 지명은 법주리에 '새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국토정보맵에는 우항리에 '새말들'이 표기되어 있다. 카카오맵에는 우항리와 하대리에 '새말'이 표기되어 있다.
 - 10) 조령을 문경새재로 칭하기도 하고, 조령 남쪽의 계곡을 1981년부터 문경새재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문경새재는 고개 또는 공원 명칭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비록 유래는 상이하지만) 새재가 곧 조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령은 충북 괴산군 연풍면과 경북 문경시 문경읍 경계에 위치하므로 행정구역명인 문경과 고개 이름인 새재의 결합지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 11) 금왕꽃동네는 행정구역명인 금왕과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가 결합된 지명이다. 금왕읍은 충북 음성군에 속한 행정구역이고, 꽃동네는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와 음성읍 동음리에 걸쳐 있는 대규모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이다.
 - 12) 하이패스까지 후부 요소로 볼 경우, 2음절이 310개(62.0%), 3음절이 158개(31.6%), 4음절이 24개(4.8%), 5음절이 8개(1.6%)로 뚜렷한 지수분포를 보인다.
 - 13) 한국도로공사 설계처(2003)에 따르면, 출입시설 명칭은 아래와 같은 기준(1999. 12. 7. 제정 또는 개정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제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명칭 부여(읍 단위 이하의 행정 구역 명칭 부여 지양)
 2. 주요 시설이나 인지도가 높은 시설의 명칭 부여
 3. 지방자치단체 구역 명칭이 기 부여된 경우
 - 1) 지방자치단체 구역 명칭에 방향 명칭(동·서·남·북) 부여
 - 2) 방향 명칭을 부여하고도 부족한 경우, 차 순위 행정구역 명칭 사용
 4.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명칭 부여 금지 (JCT 제외)
 - 14) 송호열(2020c, 40)은 '2003. 5. 12.에 휴게소와 터널의 명칭 부여 기준이 처음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나, 해당 결재 문서의 원본 전체(2021. 1. 21. 한국도로공사가 공개한 문서가 아니라 2008. 7. 28. 필자가 직접 열람, 복사한 문서, 논

- 문 게재 확정 이후에 발견)에 따르면 1999. 12. 7.에 출입시설 명칭 기준을, 2000. 11. 7.에 교량 명칭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0년 동안이나 명칭 부여 기준도 없이 고속국도 각종 시설물에 명칭을 부여해 왔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15) 한국도로공사 도로처가 2021. 1. 공개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2016. 11. 이후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분기점 명칭도 나들목 명칭 부여 기준과 동일하며, 본선 영업소(행정구역 명칭 부여)를 제외한 영업소의 명칭은 나들목 명칭을 따른다. 신규 나들목을 설치할 때, 기존 나들목 명칭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안의 내용은 필자가 추가한 것이며, 문맥 역시 필자가 수정하였다.
 - 16) 여기에 해당하는 나들목과 소재지 행정구역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광양IC - 광양시 광양읍, 성남IC - 성남시 성남동 / 거창IC - 거창군 거창읍, 고창IC - 고창군 고창읍, 군위IC - 군위군 군위읍, 무주IC - 무주군 무주읍, 보은IC - 보은군 보은읍, 서천IC - 서천군 서천읍, 순창IC - 순창군 순창읍, 영광IC - 영광군 영광읍, 영덕IC - 영덕군 영덕읍, 옥천IC - 옥천군 옥천읍, 입실IC - 입실군 입실읍, 장성IC - 장성군 장성읍, 장흥IC - 장흥군 장흥읍, 진안IC - 진안군 진안읍, 진천IC - 진천군 진천읍, 창녕IC - 창녕군 창녕읍, 청도IC - 청도군 청도읍, 함양IC - 함양군 함양읍, 함평IC - 함평군 함평읍, 홍천IC - 홍천군 홍천읍, 횡성IC - 횡성군 횡성읍 // 문막IC - 문막읍 문막리.
 - 17) 현릉은 조선 3대 태종 부부의 능이고, 인릉은 조선 23대 순조 부부의 능이며, 사적 제194호로 지정되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18) 송추IC는 자연지명에 속하는 계곡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송추유원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인문지명인 관광명소에서 유래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 19) 동해선 부산-울산 구간의 해운대IC는 기장군 기장을 내리 및 석산리에 위치해 있고, 해운대구 동단 경계와는 적어도 1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해운대해수욕장과는 6km 이상, 해운대 석각이 있는 동백섬과는 8km 정도 떨어져 있다. 따라서 상당히 부적절한 명칭이다.

- 20) 경인선 서단의 서인천IC는 인천 서구 가정동과 부평구 청천동, 계양구 효성동 경계부에 위치해 있다. 인천광역시 전체로 볼 때, 중앙부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서인천IC는 인천의 서쪽에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는 인천광역시의 방위 관련 구명(區名)들 중 위치와 괴리된 명칭들이 많기 때문이다.
- 21) 동해선 삼척-속초 구간의 남양양IC는 강원 양양군 최남단 강릉시 경계부에 위치해 있다. 양양군청 소재지와는 23km 이상 떨어져 있다. 이곳이 현남면 남단이어서 2001년 개통 당시부터 현남IC로 불려왔는데, 2017. 12. 남양양IC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동일 시기에 같은 구간의 남삼척IC(2016년 개통)는 근덕IC로 변경되었다. 이는 일관성이 없는 조치로 보인다. 이왕 개명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양양군에는 남양양IC 외에 양양IC, 하조대IC, 북양양IC가 있는데, 양양IC는 양양군청 소재지와 인접해 있고, 하조대IC 역시 하조대해수욕장과 인접해 있어서 매우 적절한 명칭이다. 그런데 북양양IC의 경우, 속초시 경계부인 양양군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 양양군청과 9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 속초 중심지와와의 접근성은 속초IC보다 오히려 북양양IC가 더 양호하다.
- 22) “우리나라 고속국도 휴게소(SA)의 분포 및 명칭 특성”에 관한 연구 중 요약(송호열, 2020c:23)의 ‘명명 유연성 측면에서는 행정구역명 관련 분기점 명칭이 66.7%로 가장 많았고, 결합지명이 19.3%로 다음을 차지하였다.’는 문장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명명 유연성 측면에서는 행정구역명 관련 휴게소 명칭이 66.9%로 가장 많았고, 결합지명이 19.1%로 다음을 차지하였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5, 「입체교차로 설계 지침」.
 국토교통부, 2020,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세종: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한국지명유래집-중부편」-, 수원: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2010a, 「한국지명유래집-전라·제주편」-,

수원: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2010b, 「한국지명유래집-충청편」-, 수원: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2011, 「한국지명유래집-경상편」-, 수원: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민궁기, 2020, 「울산의 지명」, 서울: 도서출판누리.
 송호열, 2006, 「한국의 지명 변천」, 파주: (주)성지문화사.
 송호열, 2017, “우리나라 대로명의 특성,” 한국지도학회지, 17(3), 41-58.
 송호열, 2018a, “비수도권 도시철도 역명의 지역별 특성,” 한국지도학회지, 18(1), 29-48.
 송호열, 2018b, “명명 유연성 관련 지명 유형 분류와 그 적용에 관한 고찰,” 한국지도학회 2018 춘계학술대회발표자료집, 51-68.
 송호열, 2018c, “자연지명 및 인문지명 관련 도시철도 역명의 부적합성,” 한국지도학회지, 18(3), 45-66.
 송호열, 2019, “우리나라 경찰서명의 특성: 1945년과 2018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9(1), 17-34.
 송호열, 2020a, “우리나라 세무서명의 특성 변화: 주요 변동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20(1), 37-65.
 송호열, 2020b, “우리나라 고속국도 분기점(JC)의 분포 및 명칭 특성,” 한국지도학회지, 20(2), 1-11.
 송호열, 2020c, “우리나라 고속국도 휴게소(SA)의 분포 및 명칭 특성,” 한국지도학회지, 20(3), 23-43.
 송호열, 2020d, “고속국도 개통사 -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와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 한국지도학회지, 20(3), 109-138.
 越智唯七(오치 다다시치), 1917,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경성: 중앙시장.
 인천광역시 남구청 문화예술과, 2015, 「도시마을생활사(승의·도화동편)」, 발간등록번호 54-3510000-000040-01.
 한국도로공사, 2020, 「나들목 및 분기점 현황」.
 한국도로공사, 2021a, 「노선별 관리현황」.
 한국도로공사, 2021b, 「도로현황조사」.
 한국도로공사50년사편찬위원회, 2019, 「한국도로공사50년사: 1969-2019 : 50년의 자부심 세계로 미래로」, 김천: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 2016, 「시설물 명칭 심의위원회 운영개선(안)」.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2003, 「시설물 명칭 부여기준 검토」.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 <http://www.ggex.co.kr>

송호열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http://www.yseway.com>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
네이버지도, <http://map.naver.com>
덕송내각고속화도로주식회사, <http://dsngeway.co.kr>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부산항신항제이배후도로주식회사, <http://www.bs2road.co.kr>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http://www.syeway.co.kr>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http://www.seoulbeltway.co.kr>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 <http://www.sm-hi.co.kr>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식회사, <http://www.mweway.co.kr>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http://www.hiway21.com>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http://www.dbeway.co.kr>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http://www.okhiway.co.kr>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http://www.igex.co.kr>
인천대교주식회사, <http://www.incheonbridge.com>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식회사, <http://www.ashiway.co.kr>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 <http://www.sseway.co.kr>
제이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 <http://www.2ydway.co.kr>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http://www.cneway.co.kr>
카카오맵, <http://map.kakao.com>
한국도로공사, <http://www.ex.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grandculture.net>

교신: 송호열, 02832,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3길 101, 101동
1502호(이메일: shy6008@chol.com)

Correspondence: Hoyul Song, 101-1502, 101, Dongsomun-ro
3-gil, Seongbuk-gu, Seoul 02832, Republic of Korea
(Email: shy6008@chol.com)

투 고 일: 2021년 2월 13일

심사완료일: 2021년 3월 3일

투고확정일: 2021년 3월 4일